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주시, 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한 책자 발간... 총 8개 분야 60개 정보 수록

전주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지원한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을 운영하고,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황관주 기획조정국장

또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특례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후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을 발급하고, 이를 패용토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시행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시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금액과 대상연령도 확대한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쿠폰20' 참여자점도 확대되고, 자료실과 열람실 위주로 운영하던 금암·인후·송천도서관은 책놀이터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보조급24(국가보조급 맞춤형서비스)가 자치단체 서비스까지 확

대 제공됨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육아 기본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수혜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아수당 30만 원 현금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외에도 임원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돼 보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차등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밖에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배송으로 수령 할 수 있으며, 투병폐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지원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모두 1인당 8만5000원, 10개월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경제 분야 신규시책으로 전주 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운영과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배달·대리운전 등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노동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보이광장에 설치·운영한다.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

월 30만 원 한도, 연 120만 원 한도로 운영해 누구나 1회 이상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고, 정기권 요금을 인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차가 전면 금지되는 등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전기자동차가 공유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며,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전주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도 농업기계 임대 가능해진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 선불금도 지원된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책자를 완성·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QR코드 인증 기기 여러대 놓인 대형마트.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전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전주시, 17일부터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대상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지급하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2만 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30개 업종으로, 80만 원이 지급된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중공업 △학원(교습소 포함)·독서

실 등이 해당한다. 시는 신청 초기 접속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일간은 홀짝 신청제로 접수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 신청하면 되며, 그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해야 하며, 가족 및 직원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1차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신청분은 설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기술 보급사업 42억3040만원 투입한다

전주농기센터,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농업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2022년 새해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올해 총사업비 42억304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용자 소장

이와 동시에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 벼 안전생산방제 지원,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도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다음 달 3일까지 각 사업별 필요서류를 지참해 전주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706~6717, 672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유점감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농촌 자원·환경을 활용한 공유농업, 생활·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생 협력기술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대상 '나를 찾는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전주지역 청소년들은 올해도 전주시 야호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자기주도력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설

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주시지역에 거주하는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야호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나를 찾는 아카데미'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 전주시와 여성가족부가 국가 정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주형 전환교육 '나를 찾는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협력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기획·실행·성장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관심 분야 프로젝트 진행 △보충학습 △스스로 디자인하는 여행 △청소년 독립 영화 제작, 음악(프로듀싱 체험 등), 춤 등 방학몰입 집중 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학습멘토링) 등을 경험하게 된다. 분기별 1회에 걸쳐 주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업이 방과 후에 진행되는 만큼 급식 및 귀가 차량도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97~8)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는 문의 후 이메일(jy066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2022년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평화·서신·효자·건지도서관 등 4개 시립도서관에서 전주시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원하는 독서교실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 느끼면서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평화·서신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효자도서관과 건지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책에서 나를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겨울독서교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책과 도서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겨울독서교실 참가자 중 우수학생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전주시장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